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배포일자	2023년 10월 17일(화) 총 3매	
담당 부서	안전상황실	담당자	허창렬 ☎440-5751 박주하 ☎440-5753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초등학교 주변 위험·위법행위 15만여 건 적발
- 개학기 맞아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지역 안전점검 -
-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점검해 약 3억 원 과태료 부과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초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이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 위해 요인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을 적발하고 약 3억 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6일부터 27일까지 관내 260여 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구역, 식품안전 보호구역 등 대상을 점검했다.

관내 10개 군·구,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해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 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점검 했다.

점검 결과 총 148,320건의 위험·위법 사항을 적발했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 했고, 위법 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교통안전 분야가 가장 많았다.

▲교통안전 분야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2,431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 4천여만 원을 부과했으며, 경찰서,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451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청소년 대상 불법 판매 행위 등을 집중단속했는데,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 미부착 등 97건에 대해 계도와 함께 시정명령 등을 조치했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예방에 중점을 두고 1,360개소를 점검해 34건을 현장 계도를 조치했다.

▲불법광고물 분야에서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광고물 철거를 실시해 145,758건을 적발, 과태료 5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현장 계도 등을 조치했다.

박찬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꾸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 관련 사진 >

